

##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 송 ..... 357장 ..... 다같이

1.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2. 온 인류 마귀 궤환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3.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후 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 기 도 ..... 가족 중

### 성경봉독 ..... 누가복음 8:26-30 ..... 인도자

### 설 교 ..... “ 네 이름이 무엇이냐? ” ..... 인도자

### 기도(합심기도) ..... 설교자/다같이

1.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주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사용케 하옵소서.
2.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환경보호에 앞장서게 하소서.
3. 전도통합예배를 위한 예비 신자를 걱정하고 축복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네 이름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8:26-30

거라사인의 이야기는 공관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광풍이, 거라사에는 광인이 있었다. 세상과 사람이 모두 미쳐 날뛰다. 광인과 돼지는 세속문화와 세속국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 거라사인의 모습을 통해 영적 현주소를 추정할 수 있다. 무덤 사이에 거한다(죄와 사망), 홀로 거한다(고립, 격리, 외로움), 결박되어 있다(자유 상실), 부끄러움을 모름(영적 어둠), 돌로 자기를 확대함(자해, 자살), 소리를 지름(내면의 고통), 사나움(포악성, 폭력성). 맨 쇠사슬을 끊음(귀신의 강력한 역사), 더러운 귀신 들림(영적인 부정함),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요청함(영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함). 이를 사회 영역으로 확대하면, 인간성 파탄, 자학성, 사회적 방치, 무정부 상태, 사회불안,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자기 진영 손익만 계산함 등이다. 현대 사회는 영적으로 광인과 진배없다. 광인들이 도처에 있다. 예를 들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광인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벌써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에는 엄청난 파장과 비극이 벌어질 것이다. 사실 많은 청소년이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지만, 상당수가 사춘기를 겪은 후 자기의 성정체성을 확인하고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게 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것이 실정법상 죄가 될 것이다. ▶ 사람은 자기 안에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리니, 도시 자기 집에서 옷을 입고 살던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옷도 입지 않고 대신 쇠사슬에 매여 살고 있다.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짐승처럼 살고 있다. 많은 귀신, 더러운 귀신, 힘센 귀신에 들려서 삶의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했다. 귀신을 섬길 것인가 삼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광인 안에 있던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신앙 고백도 아니다. 귀신의 믿음일 뿐이고, 이런 믿음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게다가 예수님을 알아본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관계가 없다고 선언까지 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정말 예수님의 일은 귀신의 일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귀신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한다. 예수님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그는 “나는 군대”라고 대답한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는 것이 내 이름이 된다. 당신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귀신인가? ▶ 귀신들은 본래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그들을 무저갱으로 쫓아내지 말라고 요청한다. 예수님은 그들을 돼지 떼로 보내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인가? 만일 돼지가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에 쓰이던 부정한 짐승이라면, 귀신의 파괴적인 본성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인간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 마을 사람들은 회복된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께 자기 마을로 들어오지 말라고 요청했다.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사람들은 일의 좋고 나쁨보다 자기에게 돌아올 손익을 계산하기에 바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면서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거대한 귀신들을 제압하셨다.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풍랑을 겪으면서 거라사에 가신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구원하시고자 함이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 언제라도 다시 그런 광풍을 뚫고 오실 것이다.